

원전/재난 아시아의 지금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뒷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본 보물찾기 달인 회사원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⑫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
과의 만남

October 10, 2013

트윗 10

이이네! 28

“비도 오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 조용필 씨가 말을 걸자, ‘네-! ‘라는 함성이 일제히 솟았다. 9월 28일의 밤,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야외콘서트. 그나마 보슬비여서 행운이랄까. 자리에 놓인 비옷을 머리부터 푹 뒤집어쓴 채 2시간 반 가까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쉬임없이 그의 노래에 전율했다.

퇴직 후 31년 만에 내가 서울 유학에 재도전한 건 지난 3월. 그로부터 한 달 뒤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조용필 씨였다. ‘가왕’ 이라 불리는 이 국민적인 가수가 1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더니,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가 느닷없이 차트 1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젊은 인기가수들과 싸이를 제치고 이룬 쾌거다. 63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껍질을 깨고자 외국 작곡가에게 의뢰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건, 같은 세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내게 더 없는 낭보였다.

생각하면 32년 전, 서울에 유학 오자마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의 히트곡 ‘고추잠자리’와 ‘창밖의 여자’를 듣고 깜짝 놀랐었다. 빠른 템포의 팝스타일이며 아름다운 발라드 모두, 곡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가창력도 범상치 않았다. 그리고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한오백년’을 듣기에 이르러서는 혼을 뺏기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열린 파티에 그가 기타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눈앞에서 노래해 준 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는데 우리에게도 불러 보라며 기타 반주를 해 주다니.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후 취재 등으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설마 나의 재유학을 환영이라도 하듯 이렇게 새로운 대성공을 거둘 줄이야. 팬이란 제멋대로 해석하기 마련이라 이는 내게 보내는 응원가가 틀림없다고 여겼다.

● 꿈에도 모른 재회, 그리움 이는 노래

자, 8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주간조선의 취재에 응한 후 기자의 권유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바로 와 줄 수 없을까?” 똥고 하니 어느 저명인사택에서 조용필 씨를 주빈으로 만찬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거기서 내 얘기가 나왔기에 “얼른 부르자”는 얘기가 됐다.

이건 꿈에도 몰랐던 기회다. 기자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했지만 식사를 얼른 마치고 날아갔다. 덕분에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에는 “저녁 6시 50분 무렵엔 친분이 두터운 가수 조용필 씨가 그에게 ‘번개’ 저녁을 제안했다”고 소개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였다. 그날 밤은 노래방에서 즐겁게 보냈는데, 일반인의 노래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재미있다는 듯 들어주는 게 조용필 씨의 좋은 점. 물론 그도 ‘헬로’와 ‘바운스’를 비롯해 그리운 노래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아, 나는 다시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자초지종도 있었던 후의 수원콘서트다. 평균 연령은 높아도 펜라이트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줄곧 일어난 채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흥분하는 청중들 모습은 젊은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요즘 최악인 한일관계 덕에 나도 우울한 나날



조용필 씨의 야외콘서트 모습.



아사히 eBook 신간
영토마찰은 이렇게 일어났다
동북아시아, 미래로 가는길
7월말까지 50% 할인 자세히 보기 >>

More AAA

Facebook

Twitter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⑫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과의 만남



September 23, 2013
서울에서는 서양인과의 귀중한 만남도 종종 있다. 이달 9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글로벌포럼도 그랬다.

트윗 2

이이네! 14

이었던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듯 친구와 함께 열광하며 셔터도 마구 눌러댔다.

조용필 씨는 11월 7일 일본에서 콘서트를 연다. 일본 공연은 1998년 이후 무려 15년 만이란다. 그리고 보니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일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와 회담 후 역사적인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낸 것도 15년 전.(동아일보 칼럼 '東京小考' 9월 27일 참조) 한류 붐이 시작되는 건 그 뒤부터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용필 씨의 일본 상륙이 양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에 잠기는 나였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㉞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맙다!

September 04, 2013

3월 입학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말았다. 6개월 가까이 매일 다닌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얘기다.



트윗 { 1

이이네! < 26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며 한일 간을 오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신문기자' 등이 있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㉞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한 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타 같아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림없이 일본대사관 후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무공사가 아닌가. 한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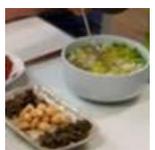
트윗 { 1

이이네! < 24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㉞즐겁달까, 신촌에서의 하숙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월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소란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단신으로 와 있는 나는 자취가 서툰데 외식만으로는 재미가 없는데다가 낯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면 싶다. 대학가 신촌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트윗 { 3

이이네! < 21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㉞ 대학원생들의 지적 교류, 일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의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재킷, 흰 바탕에 검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하는 재킷,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얼마 전 국민으로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한 색채의 '재킷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트윗 { 5

이이네! < 17

'서울에서 쓰는 편지' 조용필 와카미야 요시부미

1

Share

트윗 { 10

이이네! < 28



댓글 입력...

댓글 달기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㉞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과의 만남

게재 기사,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by The Asahi Shimbu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or republica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